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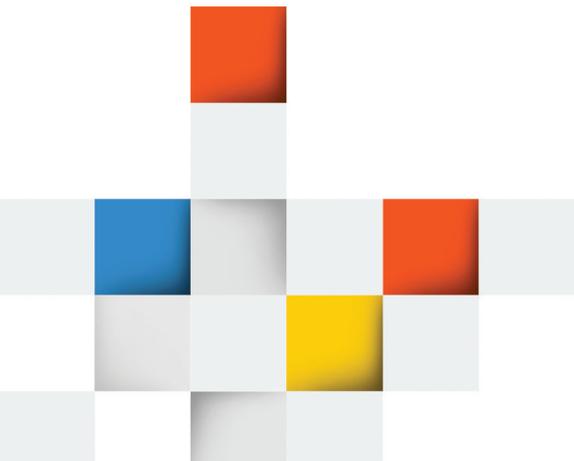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정치 양극화와 사회통합: 성별과 세대 간 차이

하상응 (서강대학교)

-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양극화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은 배제하더라도,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 분화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특히 최근 성별 간, 세대 간 양극화 문제가 주목 받아 왔는데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빈약하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의 정치 양극화 상황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뿐 아니라, 성별 및 세대 간 자가보고 정치 이념에도 눈에 띄는 양극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 게다가 한국 정치 이념의 두 축인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재분배에 대한 태도의 성별 및 세대 간 차이 역시 심화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무역의 확장, 자유로운 이민의 확대, 그리고 언론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민주주의 위기 현상은 이미 정치학계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혐오와 배제 논리에 맞물린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외로 한국 정치가 과거에 비해 양극화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근거가 제시된 경우는 드물다. 양극화라는 개념이 기본적으

로 시계열 변화를 담보로 한다는 사실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양극화 개념이 오남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보수 진영 간,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이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여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 정도를 확인한다.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 상대방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여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정도도 확인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간 정치 양극화 정도를 비교해 본다.

정치 양극화: 국가 간 비교

먼저 한국의 정치 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제 비교를 수



행한다.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정치 양극화 지표는 (1) 각 정당의 정강(party platform), 즉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당의 입장에 기반하여 정당의 이념 위치를 정하고, (2) 선거 때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고려하여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표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선거가 열리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정치 양극화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지표 작성에 고려되는 정보 중 하나가 각 정당의 정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당 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의 정치 양극화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정당 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의 정당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명확한 정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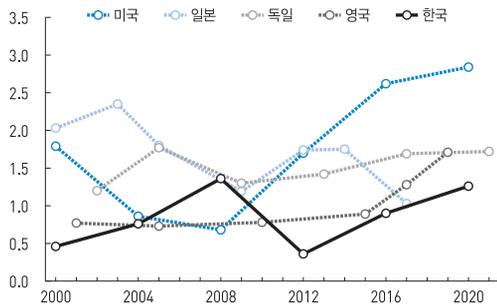
[그림 XI-11]은 2000~2021년 동안 총 다섯 개의 민주주의 국가(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정치 양극화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기준으로,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기준으로 정당 간 이념 양극화가 비교되었다.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은 의원 선거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일부는 물론 하원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완전히 비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8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당선 이후 양극화 정도가 급속도로 심화됨을 알 수 있다. 2000년

부시(George W. Bush)와 고어(Al Gore) 간의 박빙의 승부 때 잠시 양극화 정도가 심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정당 간 양극화 정도는 미국만큼 심하지는 않다. 독일, 일본, 영국의 경우를 봐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정치 양극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간 양극화 정도가 2012년부터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대 총선(2016년)에 제3당의 비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의 정강이 좌우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양극화 정도도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2008년이다.

[그림 XI-11] 정치 양극화 점수 국제비교, 2000-2021



주: 1) 통계치는 정당별 {이념점수(극좌 -100점부터 극우 +100점 사이의 값)×득표율}의 표준편차로 산출하며, 이 값이 클수록 정치 양극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 국가별 선거 종류 및 시행 연도가 다름.
출처: German Science Foundation(DFG), *The Manifesto Project* (<http://manifesto-project.wzb.eu>), 원자료, 2024.11.

한국의 정치양극화: 자료와 변수들

이 장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 양상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해 살펴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2014년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단,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 진행) 대면 면접을 통해 수집한 신뢰성이 높은 설문조사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보고 이념 성향(진보 또는 보수), (2) 북한에 대한 태도(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3)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4) 정당 선호도, 4가지 질문을 통해 정치 양극화를 측정하였다. 자가보고 이념성향, 북한에 대한 태도 관련 질문은 2003년 이후 매년 조사하였다.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은 2003년, 2009~2011년, 2014년, 2021년, 2023년까지 총 7회 조사하였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은 2016년, 2018년, 2021년에만 조사하였다.

한국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자가보고 이념성향(self-reported ideology)과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관계를 통해 유권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지역 갈등과 더불어 주목하는 사회 균열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령은 세 집단(18세~39세, 40세~59세,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나

누어 보았다.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은 경제 영역, 사회문화 영역, 대북정책 영역으로 나뉘는 다차원성을 띠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 지지 정당 간의 관계,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와 성별 및 연령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당 선호도와 성별 및 연령별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국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 정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치 이념: 성별 및 연령별 차이

[그림 XI-12]는 한국 유권자의 이념 양극화 추이를 자가보고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중도’로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보수’ 혹은 ‘진보’로 응답한 비율을 남녀 간 시계열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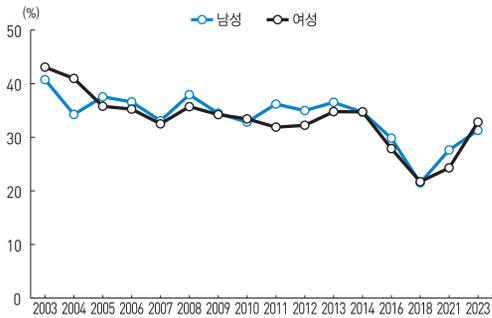
[그림 XI-12]의 첫 번째 패널(“보수성향”)을 보면 우선 설문 시점을 막론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았지만, 2005년 이후 그러한 경향성은 사라진다. 2023년에 와서야 다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두 번째 패널(“진보성향”)을 보면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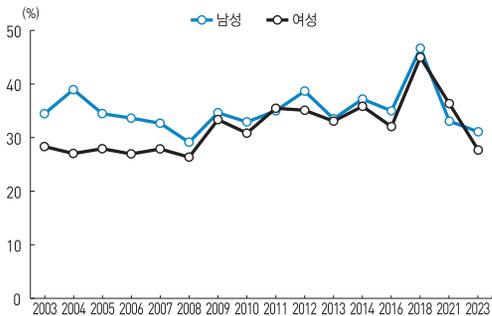
에 비해 여성이 덜 진보적인 성향을 보임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 자신을 ‘진보’라고 답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보다 일관되게 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남성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진보’ 혹은 ‘보수’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향성이 큰 반면, 여성 응답자는 자신을 ‘중도’로 규정하는 경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XI-12] 한국 유권자의 성별 정치 이념 비율, 2003-2023

1) 보수성향



2) 진보성향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중, 보수성향(‘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 및 진보성향(‘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 간 정치 이념 성향의 시계열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3년 이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8년에 ‘보수’ 응답자의 비율은 눈에 띄게 작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에 일관된 남녀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즉, 남성이 과거에 비해 더 보수적이거나 여성이 과거에 비해 더 진보적이 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 XI-13]은 연령별 자가보고 정치 이념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실은 통념과 같이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 든 세대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18세~39세 응답자에 비해 40세~59세 응답자가, 그리고 그들에 비해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일관되게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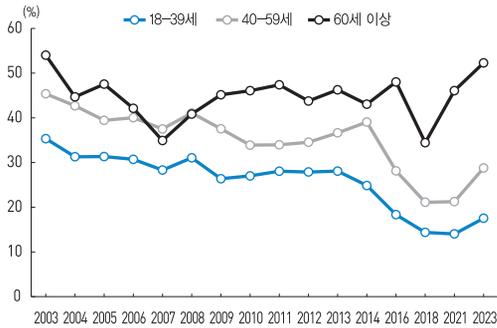
연령별 시계열 추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8세~39세 응답자에게서 2003년 이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혹은 2023년과 같이 추세에서 살짝 벗어나는 비율도 있긴 하나, 2003년 대비 2023년 18세~39세 응답자에서 ‘보수’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비율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8년 ‘진보’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긴 하나 2021년과 2023년 ‘진보’의 비율은 2003년~2009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0세

~59세 응답자에게서도 ‘보수’의 비율은 다소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나, 60세 이상 응답자에게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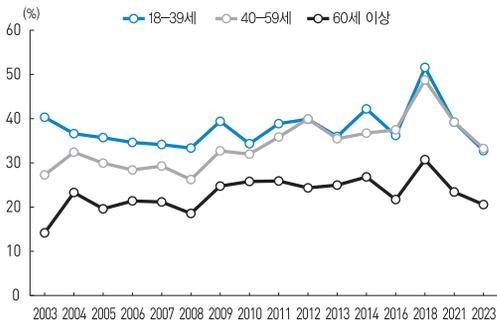
‘보수’로 규정한 응답자의 비율만을 보면 연령별(세대별) 이념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보인다. 2003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가 18세~39세와 60세 이상 간 꽤 컸지만 2018년 이후 그 차이가 더 심화되었다. 그런데

[그림 XI-13]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정치 이념 비율, 2003-2023

1) 보수성향



2) 진보성향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중, 보수성향(‘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 및 진보성향(‘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역으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연령별(세대별) 이념 양극화가 오히려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진보성향’ 응답자 비율의 세대별 차이가 2003년에는 꽤 컸지만 2021년과 2023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성별 및 세대 차원에서 정치 이념의 양극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성별과 세대 간 투표 행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논의가 접화되곤 하는데, 정당 지지가 곧 이념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적어도 자가보고 정치 이념 차원에서는 양극화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발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이념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를 성별 및 세대별로 나누어 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북한에 대한 태도: 성별 및 연령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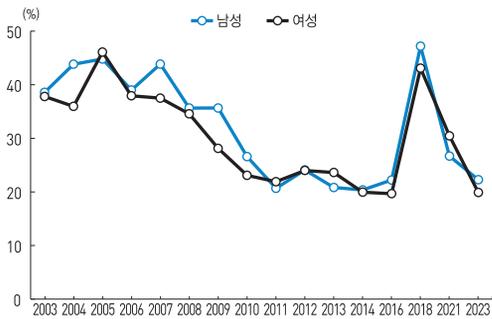
[그림 XI-14]는 남녀 간 북한에 대한 태도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북한을 “협력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만을 포함시켰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의 함수다.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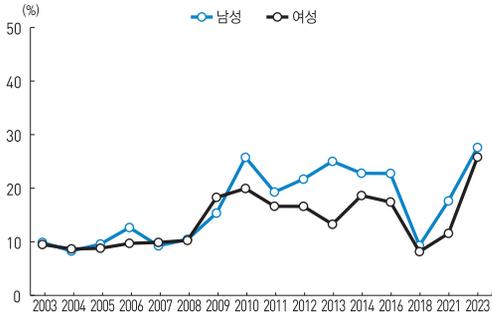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2018년 다시 북한과의 대화의 창이 열리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거의 정확하게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의 변화와 맞물린다.

[그림 XI-14] 한국 유권자의 성별 북한에 대한 태도, 2003-2023

1) 협력대상



2) 적대대상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중 '협력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러나 북한에 대한 태도의 남녀 차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010년, 2013년, 2021년처럼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꽤 큰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간 응답 패턴의 차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남녀 간 정치 양극화 경향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북한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림 XI-15]는 북한을 대한 태도에 연령별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림 XI-14]의 패턴과 유사하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북한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에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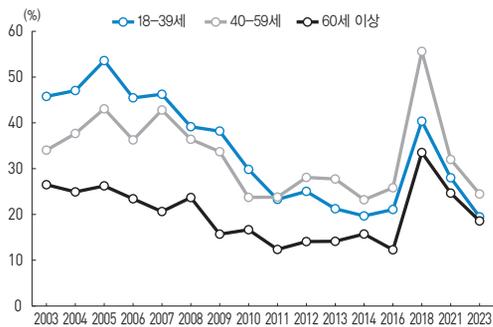
동시에 세대별로 북한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8세~39세 응답자들에 비해 60세 이상 응답자들에게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일관되게 낮은 반면,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일관되게 높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18세~39세였던 것에 비해 2012년부터는 40세~59세인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연령의 함수가 아니라 세대의 함수임을 시사해 준다. 특히 2018년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 시점에 과반이 넘

는 40세~59세 응답자들이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본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의 시계열 변화도 협력대상을 보는 비율의 변화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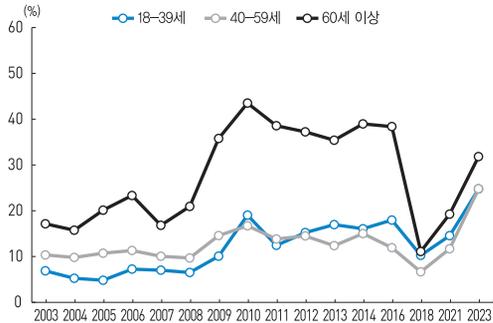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을 보는 시각에 연령별 혹은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2003년에 비해 2023년의 응답 패턴이 세대별로 모여 있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비율의 세대간

[그림 XI-15]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북한에 대한 태도, 2003-2023

1) 협력대상



2) 적대대상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중 '협력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차이는 2003년~2009년까지는 꽤 컸으나 2010년~2016년에는 줄어들고, 2018년 한 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입장의 세대 간 차이도 2009년에서 2016년까지 60세 이상 응답자의 상당수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극화된 것처럼 보이나, 2018년부터는 그 경향성이 줄었다. 따라서 정치 이념의 양극화를 북한에 대한 태도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세대간 양극화가 보이긴 했지만, 그 경향성이 꾸준히 지속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그림 XI-16]은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003년 이후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다. 한때 80%에 육박하던 소득 재분배 정책 지지도는 2021년과 2023년 각각 50%와 60%대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분배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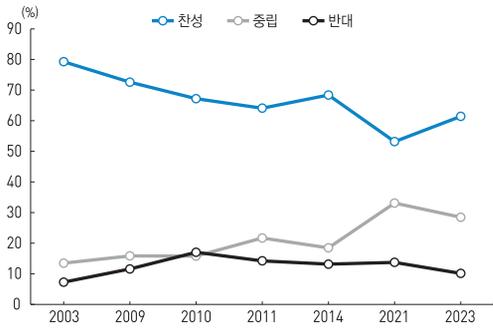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성별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2003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간 응답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 이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남녀 차이가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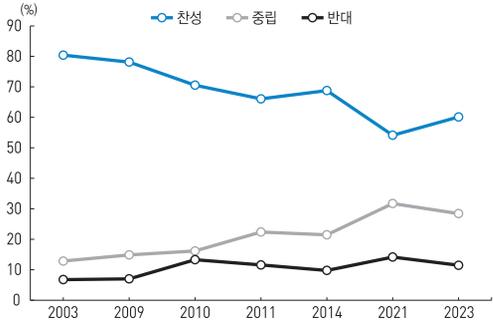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시계열적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별 차원의 양극화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림 XI-16] 한국 유권자의 성별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2003-2023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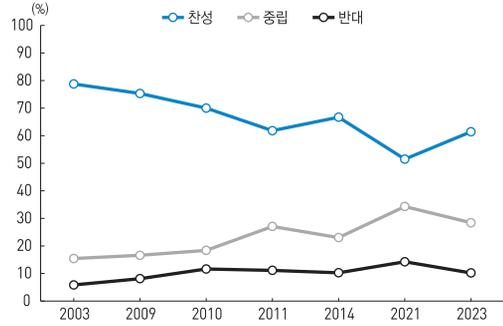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중,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 중립, 반대('매우 반대'+다소 반대)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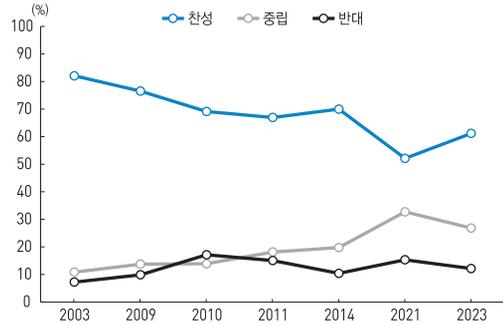
[그림 XI-17]은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나누어 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XI-1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시계열적 추이만을 보면 과거에 비해 현재 응답자들의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지지도가

[그림 XI-17] 한국 유권자의 연령별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 200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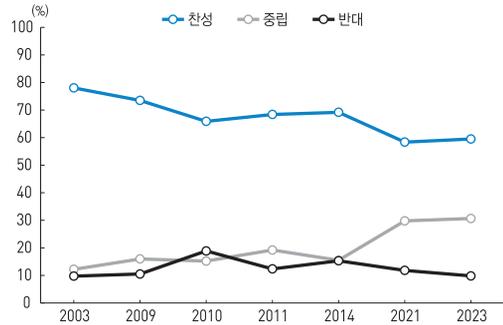
1) 18-39세



2) 40-59세



3) 60세 이상



주: 1) 통계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중,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 중립, 반대('매우 반대'+다소 반대)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향이 있지만 미세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을 보면 18세~39세 응답자의 정책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1년에 두드러진다. 2021년에는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덜 선호하는 경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2023년에도 유지되거나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덜 지지하는 현상이 공고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경제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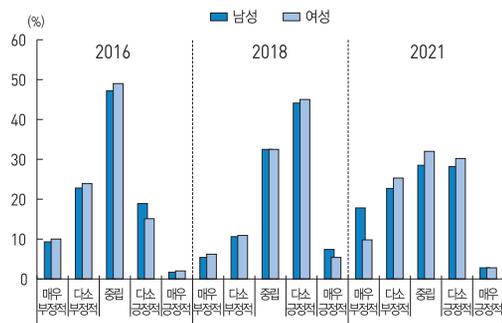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를 살펴본다. [그림 XI-18]은 한국의 진보정당(더불어민

1) 이 절에서 제시된 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귀하께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점수 평가 예를 참조하여 다음 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해당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라는 지문을 활용해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에는 "다음 정당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를 0에서 10점 사이의 숫자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이며, 5는 보통일 경우, 그리고 10은 아주 좋아하는 느낌을 말합니다"라고 지문 형식이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5점 척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2021년 응답 중 0과 1, 2부터 4, 5, 6부터 8, 9와 10을 각각 5점 척도에 준하도록 재코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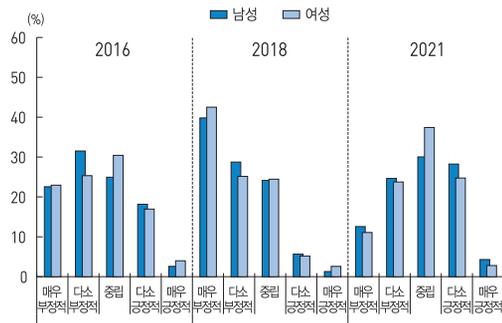
주당 계열 정당)과 보수정당(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대한 감정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2021년 다시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은 2018년 매우 부정적이었다가 2021년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림 XI-18]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 성별 정당에 대한 감정, 2016-2021

1) 진보정당



2) 보수정당



주: 1) 2016년과 2018년은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2) 2021년은 "제시된 정당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값을 5점 척도(0~1점, 2~4점, 5점, 6~8점, 9~10점)로 재분류한 결과로, 이전 연도와와의 비교에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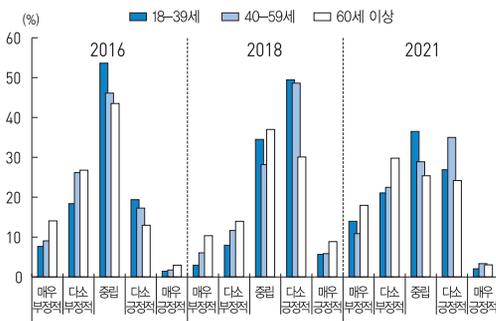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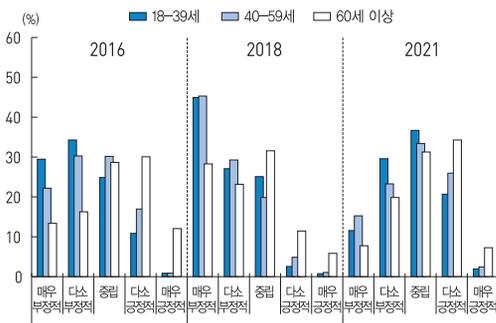
이는 양대 정당에 대한 감정에 남녀 차이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의 경우 남녀 간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은 2018년을 제외한 2016년, 2021년에 여성이 다소 중립적인 편이나 다른 감정에서의 차이가 크진 않다.

[그림 XI-19] 한국 유권자의 정서 양극화: 연령별 정당에 대한 감정, 2016-2021

1) 진보정당



2) 보수정당



주: 1) 2016년과 2018년은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2) 2021년은 "제시된 정당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의 정도"에 대한 11점 척도(0~10점) 응답값을 5점 척도(0~1점, 2~4점, 5점, 6~8점, 9~10점)로 재분류한 결과로, 이전 연도와와의 비교에 유의가 필요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19]는 양대 정당에 대한 감정에 연령 대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담고 있다. 일관된 세대 별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사건들이 반영되는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다. 진보정당에 대한 감정은 60세 이상의 세대에게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8년에도 18세~39세, 40세~59세에 비해 진보정당을 보는 감정이 꽤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진보정당을 보는 감정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긴 어렵다. 마찬가지로 보수정당에 대한 감정을 봐도, 18세~39세, 40세~59세와 60세 이상 응답자 간 차이는 보이거나 2016년 대비 2021년에 그 차이가 더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맺음말

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한국 정치 내 양극화 현상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선거 결과 정보에 기반한 양극화 지표를 보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 비해 한국의 양극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정치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2008년보다 여전히 낮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

기 위해 대표성을 담보한 대면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 성별 혹은 연령별(세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추가로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각각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을 때에도 이념 양극화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유권자 차원에서 정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흔적 역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2024년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빈약한 인상비평 차원의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현재는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partisan media)

의 등장으로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유독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선거를 치른 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투표 선택의 차이, 남녀 간 지지 후보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긴 시계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부각하여 극단주의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명확히 검증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치명적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지속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들을 공신력 있는 설문 조사에 꾸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